

한국 가족의 전망 및 발전적 모델

박 미 령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강사

A Study on the Prospect and the Progressive Model of Korean Family

Park, Mee Lyo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 As the present Korean family has been exposed to many social changes, the family types and family values of Korean family also have been changed substantial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desirable type and family values of future Korean family.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equality among family members, and bilateral kinship relations were suggested as desirable values of the Korean family. Variety in family type, including various married couple centered on family and various extended family, was suggested as future Korean family type.

1. 서 론

한국가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가 워낙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간 한국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변화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의 한국가족에 대한 전망과 발전적인 변화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가족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대 한국가족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한국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가족을 전망하고 발전적 변화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가족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가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전반적인 가족변화의 속도나 방향에 있어서 불일치 혹은 비일관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불일치 혹은 비일관성은 특히 가족의 질적변화와 양적변화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가족의 질적변화로 가족가치관 변화를 양적변화로는 가족의 유형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부가족의 증가와 직계가족의 감소 등 뚜렷한 가족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가치관 변화는 여전히 혼돈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가족의 외적변화와 내적변화의 괴리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이 한국가족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가족이 변화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논의는 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가족의 변화

아직도 우리나라 가족에 지배적 가족윤리로 남아있는 부계적 가족원리는 조선중기 이후에 확립된 것이다.

한국 고대가족은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나 신라왕실의 왕위계승에서 나타나듯이 엄격한 부계제(父系制)였다고는 할 수 없는데 최재석교수는 이를 부계가 우위에선 비단계제(非單系制)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최재석, 1983). 고려시대의 가족역시, 서류부가(婿留婦家)의 전통, 남녀의 구별없이 출생 순위로만 기재하는 호적의 기재양식, 윤회제사(輪廻祭祀)의 거행, 여호주(女戶主)의 존재, 노비의 자녀균분상속, 처변전래재산(妻邊傳來財産)의 구별, 자녀없는 부처재산(夫妻財産)의 각기 부처친가(夫妻親家)에의 귀속등(최재석, 1983) 조선중기 이후 나타나는 여성차별 및 장남우대의 관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고려시대의 가족유형이 서류부가 풍습에 의해 기혼의 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가족은 조선시대의 가족과 달리 부계제이면서 상당히 쌍계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어느 시기에 직계가족이 한국인의 이상적 가족유형으로 정립되기까지는 쌍계적 방계가족이 상당히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최재석, 1983). 이러한 경향은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어 1600년대 중엽이전에는 재산상속에 있어 자녀간 균분상속제를 취하였으며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장자봉사(長子奉祀)와 자녀윤회봉사(子女輪廻奉祀)의 두가지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1700년대 초부터는 대체로 장자봉사로 굳어지며 1700년대 중엽부터는 재산상속도 장남우대 남녀차별의 상속으로 변화된다. 한편 부계혈연집단인 씨족은 1500년대에 출현하였으며 그 이전시기에는 씨족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로 부계혈연집단인 문중의 초기형태는 16세기에 출현하고 좀 더 조직화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최재석, 1983).

요약하면 고구려 신라 고려가족에서 조선중기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은 엄격한 부

계가족이라기 보다는 양계적 특징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류부가의 풍습에 의해 모처-부처제(母處-父處制)의 거주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 딸의 차별이라든가 장, 차남 구별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선남 후녀순이 아니라 연령순으로 기재된 족보의 기재양식, 재산의 자녀간 균등상속등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중기 이후 이러한 양계적¹⁾인 경향은 엄격한 부계제로 변화하면서 남녀의 차별, 장·차남 차별등 가족내의 부계적 혈연질서가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가치는 효사상과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의 지위, 그리고 집의 관념으로 요약되는데(박혜인, 1993), 이러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기반한 시대적 배경은 조선중기 이후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전통적가치관을 조선중기 이전의 가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으로 다분히 양계적인 특성을 가진 가족가치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중기 이후의 가족가치관은 일제 강점과 8·15해방, 6·25전쟁 등 여러가지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한마디로 부계의식의 약화이다. 일제 35년간의 가족생활은, 통치의 편의상의 이유로 이전의 전통적 가족가치를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어 근대적인 가족이념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8·15해방 이후 민주주의, 자유, 또는 남녀평등등의 어휘가 나타나면서 근대적 가치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나 의식이나 행동의 면에 있어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족원리에 입각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 가족의 유형이나 가치의식면에서 변화를 나타내면서, 한국가족은 전근대적인 가족원리에서 근대적인 가족원리로 옮겨가는 과도기적단계를 나타내었다(최재석, 1982). 이러한 과도적변화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발전의 의

¹⁾ 출계를 양쪽으로 따지는 양계의 원칙을 따르는 사회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의 존재는 의문시되기 때문에(한상복 등, 1986) 양계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와 비슷한 의미로 양변적(유영주, 1989)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한쪽계통만을 존중하지 않고, 부계 모계 혹은 남계, 여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양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양계적이라는 용어는 최재석 교수의 비단계가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해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적 가족윤리인 부계직계 가족원리는 많이 약화되어, 현단계는 과도적변화단계라기보다는 양계적방향으로의 변화의 가닥을 이미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1955년 전체가족의 30.7%를 차지하던 직계가족은 1975년에는 19.4%로 줄고, 1990년에는 15.6%로 감소하고 있다(김태현, 1993). 또한 친척관계도 부계친 중심에서 탈피하여 개별가족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이효재, 1971). 가족내의 남녀차별이나 장·차남 구별의식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효와 부덕의 규범을 중심으로 수직관계를 이루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도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1989년 12월에는 부계위주의 가족법이 개정되어, 친족범위에서의 부계친 모계친차별, 재산상속상의 아들, 딸, 장·차남 차별등 부계의 차별적 가족법이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나 호주제의 존속등 부계적 요소가 남아있긴 하나 1989년의 가족법개정은 현대 한국가족의 양계적 변화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양계적 변화는 공업화, 도시화등 사회변화와 서구적 가치관의 수용 등 외부적 영향에 의한 변화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미 재산의 자녀간 균분상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양계적 변화가 꼭 외부적 영향에만 의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국가족의 변천과정을 요약해 보면, 부계가 우위에 서는 비단계가족(고대한국가족에서 조선초기 가족까지)에서 부계직계가족(조선중기이후)으로 변화하고 부계직계가족이 다시 양계적특징을 가진 현대 한국가족(1960년대 산업화이후)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한국가족의 전망 및 발전적 모델

(1) 한국가족의 전망

한국가족은 그 형태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국가족의 유형변화는 부부가족의 증가와, 직계가족의 감소를 가장 특징적인 변화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1인가족의 증가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1인단

독으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미혼자의 가구가 전국적으로 8.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공세권 등, 1987).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부가족 증가를 서구의 핵가족화로 단순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부부가족 속에는 차남 이하의 분가가족과 생활편의상의 장남의 일시적 분거가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가를 통하여 새로운 거주단위를 형성하고 있지만 부모형제와의 공동체적유대를 계속하며, 특히 부모의 부양 및 노후문제를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이효재, 1971).

장남의 노후부양 의식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장남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다(공세권등, 1987).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가족이 겪고 있는 가족유형변화는 꼭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동반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근대사회에서 가족이 어떤 제도적인 틀로써 유지되지는 않고 환경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나타내고, 그 생활면에서도 편의주의적인 성향이 농후한 점(공세권등, 1987)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부부가족의 증가속에는 핵가족적 가치관 수용에 따른 가족유형변화도 포함되어 있겠으나, 생활편의를 위한 가족유형변화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개별가족이 처한 환경에 따른 가족유형의 다양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취업 혹은 학업을 위한 1인단독가구의 증가와, 근무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가 이루는 주말부부가족, 혹은 지방근무가장이 자녀교육을 위해 부인 및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형태의 가족의 출현등은 그 한 예이다.

결국, 한국가족의 유형변화는 부계의식의 약화에 의한 가족가치관변화와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가족이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취하는 편의주의적 유형변화라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가족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한국가족의 있어서 전통적 가족윤리인 부계직계가족의식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방향은 부계의식의 약화 내지 양계적인 방향인것 같다. 가족관계의 내용면에서는 친자중심의 가족에서 부부중심 가족으로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친척관

계는 근친사이에 있어서 양계적으로 다양화해 가고 있어 부계친뿐만 아니라, 모계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엿보인다(이효재, 1971). 남편이 수행하는 가족기능중 처가 친척과의 친척관계유지기능이 자녀의 사회화기능 다음으로 높은 수행도를 나타내고 있으며(유영주, 1989), 주부는 시가(媿家)와는 의례적 활동과 경제적 관계를, 친가와와는 비공식적활동과, 수혜적관계, 그리고 정의적 유대를 맺는 경향이 있다(김경원등, 1989).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한국가족의 양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계승 및 부자관계가 여전히 남아있어 양계경향의 변화를 제한하고 있다(이효재, 1971).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부장제도 그 형태를 달리하여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현대는 전통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혼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변혁의 가능성을 보이는 시기이다(조혜정, 1992).

현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적 변형으로써의 현대적 남성지배체제가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잠식해가는 상황으로 묘사될 수 있다.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지배는 크게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 특성이 유지되는 면이 없지 않다(조혜정, 1992). 더우기 한국가족의 가족가치관 변화는 그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제반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성별, 계층별, 혹은 세대간 차이를 나타내고, 그 적용되는 측면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가족의 가족가치관 변화는 전통에서 현대 혹은 부계적인 특징에서 양계적인 특징²⁾을 잇는 연속선의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엄격한 부계에서 덜 엄격한 부계, 그리고 양계적인 특성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다양한 형태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족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유형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가치관 변화에서도 편의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부인의 취업에 따른 경제적 기여는 받아들여지면서, 가사에의 공동참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취업주부로 하여금 수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는 취업주부남편의 신전통주의³⁾는 그 좋은 예이다.

가족가치관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간 혹은 집단간 변화속도 차이와, 편의주의적 가치관 적용에 따른 가족가치관 적용의 비밀관성 문제는 현대 한국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한국가족의 변화가 부계적인 요소의 약화내지는 양계화의 방향과 다양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현대 한국가족의 적응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전망도 가능한데, 첫째로 가부장제의 잔존으로 인해 양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제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는 가족유형이나 가족가치관 변화에 있어 편의주의적 변화수용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가족가치관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가족유형 변화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구성자체를 극도로 수단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가치관 적용에 있어서의 편의주의적 경향은 가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가치관의 혼란시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비밀관적인 적용은 가족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2) 한국가족의 발전적모델

한국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 혹은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고에서, 제한적이거나 앞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²⁾ 이 용어는 최재석교수의 비단계, 유영주교수의 양변적, 이효재교수의 양측적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³⁾ M. Polma와 N. Galand가 사용한 용어로서(Adams, 1980) 부인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부인은 자신의 직업지위를 유지하면서 주부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3중직업 가정(Triple Career Family)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부인은 직장가 가정이라는 2개의 직장을 가지고 남편은 하나의 직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가족의 변화방향이 남녀평등을 포함한 가족원의 평등과 양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대 한국가족이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점중의 하나가 가족의 양적변화와 질적변화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라고 볼 때, 한국가족의 발전적 변화는 이러한 갈등과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족은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을 포섭하면서 남녀평등을 포함한 가족원의 평등과 양계화라는 발전적 과제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가족유형의 측면에서 ; 가족유형의 다양성 획득

가족유형에 있어서의 다양성 획득은 현대가족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미래사회에 증가하리라고 보는 가족의 형태로 핵가족 이외에 독신, 동거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 편부모가족, 재결합가족, 계약결혼, 개방결혼과 집단혼, 동성애집단, 공동체가족, 수정핵가족, 수정확대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정혜은, 1992). 가족유형의 다양화는 형태적 측면에서의 다양화뿐 아니라, 구조의 다양화, 기능의 다양화, 합법성의 다양화를 포함한다(김태현, 1993). 한국가족 역시, 다양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가족유형의 다양성 획득은 가족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가족 유형의 다양성 획득이 가치관 변화 없이 편의주의적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족의 안정적 유대를 희생하면서 가족을 고도의 기능중심적인 집단으로 변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족 유형의 다양성 획득을 부부중심가족, 확대가족, 기타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형태의 부부중심가족

여기에는 서구적 의미의 핵가족, 그리고 장남의 분거가족, 차남이하의 분가족등 부부가족이 포함된다. 부부중심 가족을 이루게 된 동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부부중심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동일하다. 부부중심 가족은 부부평등형 가족을 지향하며, 친족유대에서 양계적인 특성을 지닌다. 부부취업형, 역할공유형, 역할전환형 가족등 부부역할 구조의 다양성도 추구될 수 있다. 부부취업형은 각자가 자기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각기 직업생활에서의 만족을 얻는 형이며, 역할 공유형은 가정내의 역할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이다. 또한 역할전환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선택에 따라 여성이 경제적 생산의 역할을 맡고 남자가 가정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김태현, 1993).

② 다양한 형태의 확대가족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확대가족이 출현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수정 확대 가족으로 부부, 자녀가 각기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지만 근거리에서 살면서 실제로는 한집과 같이 왕래하며 지내는 가족유형이다. 수정핵가족도, 확대가족의 한 변형인데 외형상으로는 한울타리에 거주하지만 내용으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족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가족은 차·삼남은 물론, 장남의 경우에도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울타리에 살더라도 경제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최재석, 1979). 따라서 제주도 민가의 가족구조에는 한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네거리집등 한울타리에 여러채의 건물과 생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제주도 가족은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수정 핵가족형태로 확대가족의 현실적 변형을 필요로 하는 한국가족에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쌍계적 방계가족도 현대적 의미의 다양한 확대가족중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와 일정기간 동거하는 양계적 개념의 확대가족은 사회적 이동이 빈번한 현대 한국 가족에 적응력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③ 기타 가족유형에서의 다양성

부부가족, 직계가족외에 1인가족(독신), 무자녀가족, 재혼부부가족, 편부모가족등 기타가족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유형의 다양화는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나름대로 잘 적응하며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도 정상가족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부부나 자녀의 존재여부등 가족의 구성요소에 의해 정상가족, 건강가족등을 구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가지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룰 경우 그 구성요소에 상관없이 정상가족이라 보는 관점이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 재혼 부부가족, 혹은 비혈연자로 구성된 가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가족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가치관의 측면에서 ; 다양한 가족 가치관의 공존

한국가족은 가족가치관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가진 가족들이 공존하는 현상이 예견되는데, 이를 위해 한국가족이 지향해야 할 발전적 방향은, 첫째, 가부장제의 극복, 둘째, 편의주의적 가족가치관을 포함한 가치관 혼란현상의 극복, 셋째, 다양한 가족가치관 수용의 세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사회의 기본적 집단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가치관이 존재한다 하여도 가족가치관변화의 기본방향이 남녀평등을 포함한 가족의 평등과 양계적인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① 가부장제의 극복

부덕이나 삼종지도등 전통적 의미의 가부장적 이념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한국가족속에서 가장은 여전히 강력한 존재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가족내 여성의 지위가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가장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남성들은 손쉽게 가부장제로 회귀한다. 한국가족속에 남아있는 가부장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기본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양계화, 부부가족화를 포함한 현대 한국가족의 변화를 한국 전통가족윤리에 대응하는 외래문화로써 이해하려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중기 가족에 국한하여 우리의 전통가족윤리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라나 고려가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전

통가족윤리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과 근대라는 대립된 개념으로써가 아닌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의 가부장제를 포함한 부계적 가족원리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② 편의주의적 가족가치관 및 가치관 혼란현상의 극복

현대 한국가족과 같이 가치관변화를 겪고 있는 가족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편의주의적 가족가치관 적용이다. 다시 말해 편리한대로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적용하는 것이며 앞서 취업주부 남편의 신전통주의를 그 예로 지적한 바 있다. 편의주의적 가족가치관 적용은 가족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젊은이들의 결혼관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부모의 선택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파다혼수는 물질주의에 물든 기성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는 하나 결혼의 주체가 젊은 세대라고 볼 때 젊은 세대의 책임도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이들은 결혼에 있어 편의주의적 가치관을 적용하는 것이다. 배우자 선택은 자유로 하지만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은 거절하지 않으므로써 배우자 선택의 자유와 부모에의 경제적 의존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가치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의주의적 가족가치관 적용은 결국 가치관의 변화과정에서 한국가족이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혼란현상은 가족원간에 필요이상의 갈등을 초래하며 나아가 한국가족의 발전적 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자기 중심으로 편리한 가치관을 다양하게 채택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족가치관 적용과정에 있어서의 도덕성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국가족의 발전적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다양한 가족가치관 수용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한국가족의 변화는 변화의 속도에 세대간 계층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변화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수용의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화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미래 한국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 세대간 가족가치관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가치관이 전통과 근대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은 한국가족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편의주의적 가족가치관 적용을 포함한 가치관 적용과정에서의 특징들이 규명되어, 다양한 가족가치관의 공존을 위한 지침들이 발견된 문제점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현대 한국가족은 여전히 조선중기 이후 강화된 부계적 가족원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부부가족이 증가하고 가족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가족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한 것같이 보인다. 현 시점에서 한국가족이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이 남녀평등을 포함한 가족원의 평등과 양계화를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가족유형이나 가족가치관 변화과정에서의 다양성 획득이 현대 한국사회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포섭하여 한국가족의 적응력을 높힐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적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가부장적 이념의 극복과 변화과정에서의 가치관 혼란의 극복이 그것이다. 가부장적 이념이 한국가족내 남성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가치관 변화과정의 혼란을 틈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족가치관의 선택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한 가족이념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가족유형이나 가족가치관에서의 다양성 획득이 편의주의적 유형 변화나 편의주의적 가치관 적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면(편의주의적 의미의 다양화) 이는 발전적 의미의 다양화라기보다는 차라리 혼란일 것이다.

더우기 변화에 저항하는 노인이나 기성세대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가족의 발전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세대간 단절을 피하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에 대한 시각을 넓혀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미 우리나라 가족은 양계적 개념의 가족을 이루었고 아들 딸 구별없이 결혼후 일정기간 부모와 동거하는 쌍계적 방계가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공세권 등 5인(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 가족생활 주기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2. 김정원, 옥선화(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14, 서울대 가정대 생활과학연구소.
3. 김태현(1986), 미래의 가족생활, 대한가정학회지, 24(4) : 217~221.
4. 김태현(1993), 다양한 가족생활유형, 가족학 : 139~166, 하우출판사.
5. 박혜인(1993), 한국가족의 역사적 변천, 가족학 : 85~110, 하우출판사.
6. 유영주(1989),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8. 정해은(1992), 대안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 : Kibbutz와 미국의 Commune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229~238.
9. 조혜정(1992),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0. 최재석(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1.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2.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13.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4. 한상복, 이문용, 김광역(1986),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5. Bert. N. Adams(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